



# 세계화는 연구개발에서 비롯된다

## 객관적인 판단이 최선의 길

### 서울자동기계

- 1988년 6월 서울자동기계 설립(서울 신도림동)
- 1988년 10월 회사 확장 이전(서울 가리봉동)
- 1990년 카톤포장기 자체 개발
- 1990년 10월 회사 확장 이전(서울 오류동)
- 1992년 10월 회사 확장 이전(부천 약대동)
- 1993년 제함기 자체 개발
- 1994년 4월 카톤포장기 IPP 94 전시회 참가 (KOEX)
- 1994년 5월 설계실 확장 (CAD 도입(5대) 및 사무자동화)
- 1994년 10월 회사 확장 이전(부천 내동)
- 1995년 SET UP CASER 자체개발
- 1995년 2월 카톤포장기 실용신안출원중
- 1995년 4월 카톤포장기, 제함기 95 서울 PACK 전시회 참가(KOEX)



▲ 이찬구 서울자동기계 사장

### 처녀작이 성공

카톤포장기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기업이 불과 5년만에 국내 제일의 카톤포장기계 제조업체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기술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던가를 짐작케 해준다. 전혀 무관한 업종에 종사했던 것은 아니지만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는 피눈물나는 시련을 헤쳐야 했다.

서울자동기계 이찬구 사장은 모식품회사 자동화설계실에서 일을 하다가 카톤포장기계 제작의뢰를 받고 작업에 착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처녀작을 만들어 놀랍게도 성능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미지의 상태에서 자료수집에 나선 이 사장은 국내 카톤포장기계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2부를 얻어 이를

참고로 해 부분부분 장점을 골라 첫 작품을 만들었으나 운전이 고르게 되지 않아 보완에 나섰다. 만들어진 기계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종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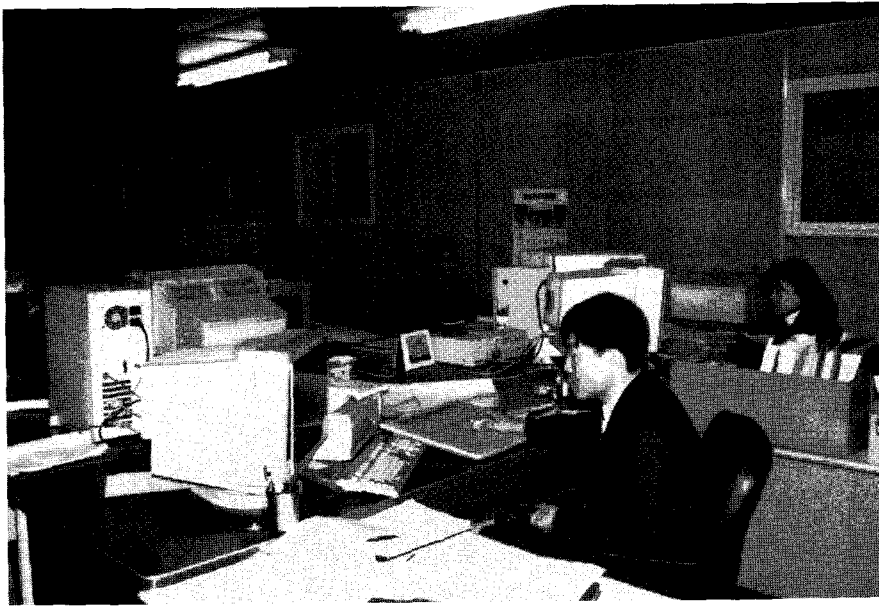
문제보완에 나선 이 사장은 지류포장과 관련한 업에 종사하던 숙부의 도움을 받아 종이 특성을 공부하면서 기계에 적용시켜 어느모로보나 뒤지지 않는 기계를 제작했다.

그러나 수요처가 있어야 기술개발이나 경영에 활기가 살아남에도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여 만든 기계와 제작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88년 자동화설계 제작업체로 출발하여 90년 주력품목을 포장기계로 전환한 서울자동기계는 93년 광동제약에 납품하면서 그 빛을 발하는가 했지만 그것도 잠깐 경영의 어려움이 닥쳤다. 3개월 동안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처가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광고도 해보고 전시회에 참가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전시회에서 기계를 관찰하고 전화를 한 삼진제약 측과 구두계약을 맺으면서 소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가장 어려울 때 납품했던 삼진제약에는 그후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 서울자동기계 설계실

재료비만 받고 대체해 주는 등 애착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회사 이외에도 자신이 납품한 기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사후보장을 해준다는 계획이며, 카톤포장기계가 꼭 필요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망설이고 있는 업체에게는 실비만으로 보급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제작된 기계들은 그동안 도출된 문제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한다. 처음 납품할 당시만 해도 기술 수준보다는 납품실적을 먼저 고려하는 유저층의 요구에 속을 태우기도 했으나 어렵게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서울자동기계만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카톤포장기계 수준은 90년 초반 해도 외국에 비해 20여년 뒤진 상태였으나 최근 2~3년간 기술축적이 급속도로 진행돼 이제는 경쟁국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 있다.

### 선익의 경쟁 선택

서울자동기계가 수많은 포장기계 가운데서도 카톤포장기계를 고집한 이유는 제작업체수가 적어 치열한 경쟁보다는 선익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과 기술수준이 나후돼 개발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자동화시스템 제작을 경험한 이 사장은 점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컴퓨터 전자 제어 기술을 포장기계에도 접목, 1년 여의 노력으로 GP(GRAPHIC TOUCH PANEL)를 채용한 SHA-200 카톤포장기계를 선보이게 됐다.

국내 카톤포장기계 대부분이 GP를 채용하게 된 것도 서울자동기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자동기계는 모니터를 흑백에서 컬러로 바꾸는 등 점차 개선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생활용품시험연구원으로

부터 품질보증업체로 지정 받았고 이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해 놓고 있다.

“실용신안 출원을 한 이유는 몰래 카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사장은 “우리 기계를 참고로 좋은 기계를 개발하면 좋는데 무조건 카피만 해 정당한 업체들까지도 피해를 입어 이를 줄이려는 의도였다”며 선익의 경쟁을 위해 필요하면 기술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상대가 국내업체들이 아니고 외국의 우수업체들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과 내수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면 수출에 눈을 돌려 세계 최고의 카톤포장기계 제작업체가 되겠다는 미래 계획을 말했다.

그동안 기계를 제작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으로 설계능력이 뒤지는 것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개념없이 설계하다 보니 첨단화에 뒤지고 주변장치들, 예를 들어 컴퓨터

터, 전기, 전자 등 기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들을 등한시 한 채 설계하다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장은 설계실 직원들에게 설계부터 운전까지 모두를 알아야 하고 또 주변기기들의 특성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장은 스스로 채찍을 가하며 책과 가까이 하고 매출의 10%를 설비와 인력에 투자하는 등 중소기업 으로서는 어려운 일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는 4천만원을 투자하여 CAD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작업의 능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이 장비들을 들여 놓을 때만 해도 업체 규모만 보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하고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 외제선호 버려야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들의 의지를 꺾어 놓는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는 이 사장은 전시회 참가 후 모 제약회사의 경우 담당자가 성능 및 작업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 구매를 요청했으나 국산기계는 믿을 수 없다는 경영층의 선입견 때문에 외국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이 제약회사는 외국제품을 사용해 보니 가격이 비싸고 생산성도 뒤져 뒤늦은 후회를 했다는 후문을 들었다며 씩씩한 웃음을 짓는 이 사장은 "아직도 외제 선호에 대한 의식이 강해 좋은 제품을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이 사장이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이다.

또 한번은 국산기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기에 사용후 이상이 없을 때 기계값을 받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했다고 한다. 써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우리 기계를 천시하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국산기계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좋은 기계는 사용해 달라는 이야기다. 그는 수입 개방이 이루어져 기술경쟁이 돼야 국내 기업도 살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자동기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내 제작업체의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그만큼 국산기계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장이로서의 기질이 강하게 배어 있는 이 사장은 "기술개발만이 살길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류인 만큼 이에 대

처하기 위해 보다 나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업을 시작할 초창기보다는 많이 건전해졌습니다. 기술이 앞서도 뒷거래나 인연이 영향을 발휘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서울자동기계는 올바른 길을 꾸준히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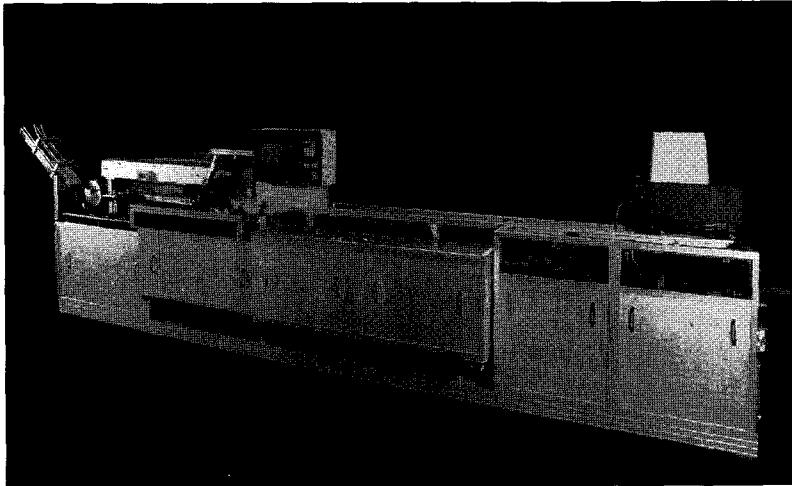
이 사장이 영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집약한 말이다. 전문 영업인도 아니고 오로지 기계만을 제작하던 그가 이제는 개발, 영업, 경영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터득한 일들이다.

한계단씩 올라가겠다는 것이 서울자동기계의 입장이고 다른 회사와 비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국내에선 최고로 자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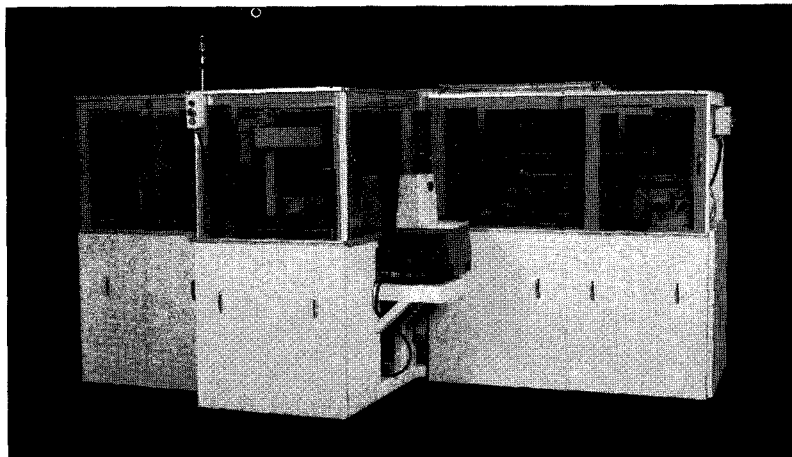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회사 직원들에게도 아는 지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이 사장은 "요즘에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강해도 과정속의 어



▲ 서울자동기계 개발의 주역들



▲ 주력 신개발품인 SHA-200 카톤포장기계



▲ 셋업케이스 팩커

## 제품소개

서울자동기계의 카톤포장기계는 국내 처음으로 GP를 적용하여 운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과부하 상태 및 트러블 발생상태가 모니터에 나타나 고장난 곳을 쉽게 찾아 운전이 무리가 가지 않는다.

ROTARY CARTON PICK-UP 방식을 채용한 이 회사의 기계는 흡입부가 3개로 고속운전시 무리가 없고 카톤 칼자국의 강약에 상관없이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체인 컨베이어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밍이 부드럽고, 전자 CAM POSITONER의 원터치 입력이 가능해 카톤의 흡입 시기의 설정이 쉽다.

이와 함께 속도조절이 쉽고, 카톤 최종 유입시까지 단계별 검출이 진행돼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재질은 프레임이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철판, 부켓이 알루미늄, 수지, SUS304로 이루어져 경량 고급화되었다.

제품 공급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메가진에서 일괄 공급된다. 분당 최대 200개까지 카톤을 생산하는 이 기계는 제약, 제과,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기계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한 점도 서울자동기계의 기계제작 방향으로 단순화된 구조가 고장이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오 선진 기자

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키우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사장이 간직하고 있는 꿈은 여유가 되면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을 쌓아 강단에 서는 일이다. 요즘도 학교교육이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익힌 기술들을 후배들에게 강의하고 싶지만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책을 무시하는 것은 근본인 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뿌리에 바탕을 둔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사장은 인간적인 것을 최고로 친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 이쉽다고 한다. 물론 여건이 되면 그만한 보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항상 생각을 갖고 안되는 것도 되도록 하는 것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처하다 보면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밝히고 믿어주는 유저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의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